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은 할 수 없이 투표장에 내몰렸을 뿐, 내 손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한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을 생각한다

하는 걸 보면 재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 배우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왔다 갔다는 안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가장상비치의 수퍼관객을 허용하는 약사법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만을 대변하면서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 입법 같은 것을 서슴없이 해치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중 수당 및 지원금으로 1억4000만 원, 200여가지의 각종 특권과 특혜,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있다.

작년에만 해도 배우자에게 월 4만 원, 자녀에게 2만 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새 규정까지 만들어 쟁겼다.

몇 년 전 한 외국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무법적인 의회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를 꼽았다고 한다.

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은 세계 언론의 토끼밥이 된 지 오래다. 해머와 전기톱으로 문고리를 부수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국회 안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축소하거나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어디에서도 없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자치 개편, 주민 여론 무시해도 되나

정부가 서울특별시와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서 구정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3개 시는 통합이 무산돼 신청을 하지 않은데다 최종 통합결정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도 이뤄질 수 있어 지역 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광역시의회 폐지와 구정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개편안도 추진위와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의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주의 훼손이라는 얘기가. 물론 지방자치 부활 21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구의원과 구정장을 ‘공천놀이’의 대상으로 삼고, 구의회의 역할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섯 번째 실시된 지방자치제를 놓고 헛소리 구의회 폐지를 결정한 자체가 아무래도 무리수가 아니냐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기존 지방행정체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웃돈 쟁기는 어린이집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광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의 규정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매매를 한 법인이 어린이집이 무더기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각종 명목으로 내세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광주 20여 곳을 확인한 결과, 규정된 특별활동비 등 상한선을 무시한 채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별도의 경비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매달 징수하는 필요경비를 일시불로 요구하기도 했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입학 첫해 연 8만 원 이하로 돼있는 입학금에 10만 원 이상 받았으며, 교재교구비 등 많지 않은 항목을 신설해 징수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

요경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어린이집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교재교구비 등 ‘필요 이상의 돈’을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횡포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를 별 어려움 없이 정원을 채우면서 학부모들이 대기업 출신을 받은 채 입소를 기다리는 점을 악용, ‘배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문제는 우선 당국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법인 어린이집의 거래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웃돈까지 받게 해서야 많이 되는가. 당국은 부과 명목 확인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해 악덕상훈을 뿌리 뽑아야 한다.

네팔에서 온 편지 14. 박행순. 카트만두의 한글학교는 토요일에만 운영하는 주말학교로써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카트만두의 한글학교. 있었으나 한글학교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네팔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

無等鼓.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완득이 엄마’ 이자스민(35)이 트위터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고 신동하.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위기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불량 범씨 파동이 준 교훈. 피해지원 등 엄청난 소송돌이 속에 휘말렸던 한해였다.

이자스민. 어린이집 문제는 우선 당국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목발 짚은 환자 안태우려 빈 택시 절반이 지나치다니. 통산을 갔다 오던 중 발목 인대를 다쳤다. 평소에도 다녔던 승용차 운전자를 할 수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만원 버스에 목발을 짚고 올라타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 택시를 타고 집과 병원을 오가기로 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윤환, 논설주간 김용, 편집국장 김용환.